

# 맞춤형 참다래 개발로 경쟁력 높여

### 노랑, 초록, 빨강 과육색 다양해... 국산 품종 보급률 21.7% 달성

농촌진흥청이 소비자 수요에 맞는 다양한 국산 참다래 품종을 개발해 시장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다래는 비타민C와 변비 해소 효과 등 건강기능성 과일로 주목받으면서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과실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후반에 도입해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약 1,300ha를 재배하고 있다.

재배품종도 다양해져 지난해 기준 노랑 과육 65.9%, 노란색 과육 28.8%, 기타 5.3%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1990년대 후반부터 참다래 육종사업을 시작해 2015년까지 과육 색이 노란 골드 10품종, 녹색 7품종(미니품종 포함), 빨간색 1품종, 수분수 3품종 등 총 21품종을 육성했다.

국내 자급률 향상에 큰 공헌을 한 품종은 국산 골드키위 1호 '제스골드(2002년 개발)'와 '한라골드(2007년 개발)'이며, 그 후 2세대 골드키위라 불리는 골드윈(2011년 육성) 품종이 있다.

골드윈 품종은 기존 골드 품종에 비해 30g 정도 더 크며, 껍질 제거 노력

을 50% 이상 줄일 수 있는 노동력 절감형 품종이다. 올해 전남 보성을 중심으로 보급하고 있다.

녹색 과육의 대표주자는 '감록(2013년 육성)' 품종이다. 녹색 참다래는 새콤한 이미지가 강하지만, '감록' 품종은 당도가 14°Brix~18°Brix로 높으며 신맛이 적다. 내년부터 본격 보급할 계획이다.

과육 중심부가 빨간 품종은 '레드비타(2012년 육성)'이다. 보통 참다래에는 30mg~80mg(100g기준)의 비타민C가 들어 있는데 '레드비타'에는 140mg이 함유돼 있다.

1개만 먹어도 성인 하루 비타민C 권장섭취량(100mg)에 충분하다. 내년에 농가 보급을 앞둔 품종으로 소비자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털이 없어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작은 품종도 있다.

'스카니그린(2007년 육성)' 품종으로 산에서 자생하는 야생다래를 개량해 만들었다. 무게는 15g~25g으로 야생다래보다 크며 당도는 14°Brix~20°Brix 정도로 높은 편이다. 추위에도 비교적 강해 기후적 제약이 있는 내륙지역에서도 특화할 수 있는 품종이

다. 이 외에도 수입 꽃가루를 대체할 수 있는 수분수 품종도 개발했는데, 꽃가루 생산량이 월등히 많은 '보화', 기존 수분수에 비해 5일 이상 일찍 꽃이 피는 '델리움' 품종 등이 있다.

다양한 국산 품종을 개발해 농가 보급에 노력한 결과, 국산 참다래 품종 보급률은 2006년 0%에서 2015년 21.7%로 짧은 기간 동안 크게 늘었다. 2020년 보급률 24.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개발한 우수한 참다래 품종의 농가 보급을 넓혀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본과 동남아 수출을 확대해나가고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조명래 원예작물부장은 "참다래는 소면적 작목이지만 건강기능성 과일로 주목 받으면서 수요가 늘고 있기에 그동안 다양한 국산 품종을 준비해왔다"며 "앞으로 FTA로 인해 외국과일 수입이 늘더라도 우수한 국산 품종 보급을 통해 시장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북우정청은 30일 전주연탄은행에 연탄 5,000장을 기탁했다.

## 전북우정청, 사랑의 연탄배달

### 김병수 청장과 직원 30여명 행사 참여

전북우정청은 30일 전주연탄은행에 연탄 5,000장을 기탁하고 김병수 청장과 직원 30여명은 전주시 완산동 에너지 빈곤 세대를 찾아 연탄배달 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 동참한 전주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는 "에너지 빈곤층에게 한 장의 연탄은 절실히 필요하고 꼭 필요한 에너지"라며 "우리가 가진 사랑과 희망

그리고 행복을 나눔으로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북우정청 김병수 청장은 "우체국에서 전하는 작은 정성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우체국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복지영역에 대한 폭넓고 체계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용 기자

# 신·구곡 혼합유통 특별단속 연말까지 연장

### 적발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시가 환산가액의 5배 이하 벌금 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중인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올 연말까지 연장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2015년산 구곡을 2016년산 햅쌀 출하에 혼합해 판매할 우려가 높음에 따라 RPC, 개인 입도정 공장, 양곡포장업체 등 취약업체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서 신구곡 혼합이 적발될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이하 벌금의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농관원은 수년간 쌀 공급과잉으로 가격하락 기조가 지속되면서 구곡 재고 보유에 따른 업체들의 부담이 가

중됨에 따라 2016년산 신곡에 구곡 혼합 부정유통이 우려돼 기획단속을 추진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130개반(280명)을 투입해 주요 취약업체들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신구곡 혼합 등 양곡표시위반 15건, 원산지 표시 위반 15건 등 총 30건을 적발했다.

농관원은 시장 마트에서 판매되는 저가미에 대해 신·구곡 감정(GOP감정)을 실시한 후 가공업체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해 신·구곡 혼합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농관원은 산지는 RPC, 입도정공장, 양곡포장업체를 중심으로 소비자는 유통업체, 식당 등 저

가미 취급업체 중심으로 조사해 신·구곡 혼합으로 의심될 경우에는 기동단속반을 투입한 추적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자료 확보 후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규모가 크거나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혼합 등 양곡표시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무거운 처벌을 할 예정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이번 집중 단속으로 관련 업계에 대한 준법 분위가 확산을 통해 소비자 생산능가를 보호하는 성과가 기대된다"며, "주변에서 구곡을 합설에 혼합하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되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1588-812번) 또는 인터넷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재용 기자

# 주택금융공사 보증자리론 12월 금리, 현 수준으로 동결

주택금융공사는 장기·고정금리,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증자리론'의 12월 금리를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i-보증자리론'과 시중지방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i-보증자리론' 금리는 연 2.50%(10년)~2.75%(30년)가 그대로 적용된다. /인재용 기자

# 도내 제조업체 경기불황 지속

### 대형소매점 판매는 코리아 세일페스타 영향으로 반짝 증가

전국적인 경제불황과 정국불안으로 도내 제조업체의 경기도 좀처럼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전국적으로 열렸던 코리아 세일페스타 영향으로 대형소매점 판매는 반짝 증가했다.

지난달 30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0월 전북지역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전북지역 10월중 광공업 생산은 전년동월대비 1.6% 전월대비 1.2% 각각 감소했다.

전북의 주력 업종인 자동차 및 화학제품, 식료품 등에서 감소한 반면, 기계장비, 1차금속,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에서는 증가했다.

또한 비금속광물, 자동차, 식료품 등에서 판매가 준 반면, 기계장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고무 및 플라스틱 등에서는 소폭 늘었다. 기계장비의 생산 및 판매의 증가

는 농업유통센터 및 굴삭기 등에서 계절적인 요인이 작용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10월 생산자제품 재고는 기계장비, 전기장비, 식료품 등은 증가한 반면, 자동차, 1차금속,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통신 등에서는 감소했다.

전북지역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4.1로 전년동월대비 5.0% 증가했다.

가전제품, 오락·취미·경기용품, 화장품 등은 감소했으나 의복, 음식료품, 신발·가방 등의 상품군 판매는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소매판매는 전월 크게 감소한 기저효과에 더해 9월말~10월 초 코리아 세일페스타 영향으로 반등했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구독문의 288-9700

# NH농협은행, '겨울 환전 해외송금 페스티벌' 실시

NH농협은행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최고 70% 환율 우대 및 추첨을 통해 아이폰7, 기프카드 등 푸짐한 경품을 증정하는 NH농협은행 겨울 환전·해외송금 페스티벌을 실시한다.

행사 기간 중에 환전하는 고객은 통화별로 40~60%의 환율 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1000달러/1000유로/10만엔 이상 환전 시에는 70%까지 우대 받을 수 있다.

해외 송금 고객은 통화 구분없이 기본 50% 우대 환율을 적용하며 NH해방고객(새로운 미래를 이끌어갈 농협은행의 Young 고객층)은 10% 추가된 60%의 우대 환율을 제공한다.

또한 건당 USD 500불 상당액 이상 환전 및 송금 실적 고객과 NH-ONE 해외송금서비스, NH에스틴유니온 자동송금서비스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총 130명에게 NH기프트카드, 농촌사랑상품권, 애플 뉴 iPad 등 푸짐한 경품도 증정한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겨울 방학 해외 여행이나 신학기 유학을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으로 고객들에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aT, 학교급식 불성실 공급업체 근절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학교급식 안전공급을 위한 불성실 공급업체 근절 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aT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은 비대면 입찰·계약 시스템으로 학교급식 구매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되며, 유관기관의 식품안전정보 연계로 안전 식재료 공급이 가능하다. 또한 계약 관련 서류가 전자로 처리되며 계약체결에 수반되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현재 9,900여 학교에서 급식 식재료 조달을 위해 이용하고 있다.

aT에서는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를 거쳐 적정 자격을 보유한 업체에게만 학교급식 조달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공급업체에서 입찰담합이나 대리납품 등 불공정행위가 나타나고 있어 이번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aT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 /인재용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